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71

JCCT 2024-9-8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솔라리스>에 구성된 문화적 기억과 기억의 물화

Cultural Memory and Reification of Memory Constructed by <Solaris>(Andrei Tarkovsky, 1972)

강승묵*

Kang Seungmook*

요약 인간의 기억 구성 과정에 미치는 전자적 기계기술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억의 문화적 구성과 물화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인간의 기억 구성 방식에 천착한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솔라리스>를 분석대상으로 문화적 기억과 기억의 물화가 구성되는 방식 및 그 함의를 탐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성이자 바다인 '솔라리스'에는 사랑을 비롯해 삶과 죽음의 진실마저 사물로 박제화하거나 화석화시키면서 기억을 물화하고 있었다. 이는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감독이 인간의 기억이 특정 계기에 의해 무엇인가에 정박될 수 있으며, 물화된 기억은 기억의 실체가 아니라 기억의 흔적이나 자취로만 남은 것이라는 점을 성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기억, 집단 기억, 문화적 기억, 물화

Abstract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where the influence of electronic and mechanical technology on the human memory construction process is gradually expanding, academic interest in the cultural construction and reification of memory is also spreading.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way cultural memory and the reification of memory are constructed and their implications by analyzing Andrei Tarkovsky's <Solaris>, which delved into the way human memory is constructed based on scientific thinking. On 'Solaris', which is both a planet and an ocean, memories were materialized by taxidermy or fossilization of love and even the truth of life and death.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director Andrei Tarkovsky's reflection on the fact that human memory can be anchored to something due to a specific event, and that reificated memory is not the actual memory, but remains only as a trace or trace of the memory.

Key words : Memory, Collective Memory, Cultural Memory, Reification

1. 문제제기

'선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Good)'은 2023년 7월에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최한 글로벌 서밋의 선언문이다. 이 회담은 생성형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해 작

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위한 '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핵심의제로 설정했다. 즉, 인간 본성과 관련된 인본주의(humanism)에 대한 재성찰을 촉구했던 것이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울 수 있는 비인간 중심주의(non-humanism)가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지배적인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비인

*정회원, 국립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4년 6월 5일, 수정완료일: 2024년 7월 7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일

Received: June 5, 2024 / Revised: July 7, 2024

Accepted: September 1, 2024

*Corresponding Author: mookang@kongju.ac.kr

Dept. of Visual Studies, Kongju National Univ, Korea

간의 기술적 사고가 인간의 인간다움에 대한 기대를 더욱 숙고케 한다. 미래 세계가 유토피아보다 디스토피아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에 보다 가까울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까닭도 기계기술이 희망보다 절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기억상실증(digital amnesia)처럼 인간의 기억력에 대한 의구심이 점증되고 있다. 기억의 실체가 불확실해지면서 실제, 현실, 진실이 가상, 비현실, 허구와 중첩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 망각되거나 망각되어야 할 것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나아가 기억의 삭제, 누락, 선별, 왜곡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인위적으로 조작된 기억이 불특정 다수에게 부지불식간에 이식됨으로써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 중의 하나인 기억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확산된다. 특히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개념이 사물로 실체화되거나 추억이 상품화되듯이 기억도 물질화된다. 기억은 자본에 의해 점차 인공적으로 가공되고 인간은 각종 디지털 기기와 장비에 그런 기억들을 효율적으로 채집, 수록, 저장, 재생하는데 익숙해진다. 그 결과, 과거와 단절된 현재가 역사성을 상실하면서 망각되듯이 물질화된(fetishized) 기억은 더 이상 기억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 기억한다고 기억‘하’는 것이 실은 기억‘된’ 것의 결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

만일 기계기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더 많은 자료가 저장되고 더 많은 시뮬레이션이 가동될수록 역사적 진리의 권위는 실추”[1]될 수밖에 없으며, 기억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 이미지, 사운드의 흔적들로 저장되고 부상”된다[2]. 인간의 기억행위는 점진적으로 기계화되고 기억 자체도 물(질)화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나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기억의 물화(reification)로 인한 소외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자본과 결합한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이 촉발하는 문화적 기억의 중요성과 기억의 물화의 제 현상들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과학과 수학, 기계와 기술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기억의 문제에 주목한 안드레이 타르콥스키(Andrei Tarkovsky) 감독의 <솔라리스(Solaris)>(1972)를 분석 대상으로 문화적 기억과 기억의 물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고자 했다.

II. 기억과 물화의 논제들

1. 문화적 기억에 관한 논쟁

과거는 절대적 물리인 시간상으로나 상대적 이치인 개념상으로 실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다 현재에 그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과거는 기억‘될’ 뿐이다. 기억은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이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써 “과거를 한편으로는 지나가버린 것으로 확정지우면서도 동시에 현재화함으로써 과거의 시간적 지위를 변화”시킨다[3]. 특히 기억의 사회성(sociality of memory)에 근거하는 집단 기억은 기억이 사회적 틀을 매개로 구성되며, 사적 기억과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 사회문화적인 관계의 특수성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공통된 시공간 같은 사회적 틀이나 공통의 시각과 공유된 입장이 전제되어야 집단 기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4].

그러나 집단 기억은 기억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상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할 뿐 기억 재구성 과정의 시간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기억의 터(sites of memory)를 비판적으로 인용한 얀과 알라이다 아스만(Jan and Aleida Assmann)이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집단 기억을 문화적 기억으로 재개념화한 것이 그 일환이다. 그들에 의하면, 문화적 기억은 기계적 저장의 특성을 가진 ‘기술로서의 기억’과 달리 기억과 망각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영향을 미치고[5], “기록에 초점을 두는 기억인 저장 기억과 구별되며 기억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6]. 또한 문화적 기억은 사회적(사람, 사회관계, 제도), 물질적(미디어와 문화적 생산물), 정신적(사상과 생각이 설명되는 방식) 관점에서 기억을 다루며, 개인과 집단의 각각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기억되는 방식과 연관된 논의를 가능케 한다. 사회-문화적인 맥락들에서 발생하는 현재와 과거의 상호작용이 곧 문화적 기억이며, 이는 사회집단들이 그들이 공유하는 과거를 구성하는데 개입하는 상징적인 질서, 미디어, 제도, 실천 등과 관련된다[7].

과거에 대한 경험과 그것과 관련된 증인이나 증언이 지속적으로 전승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문화적 형식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인 문화적 기억은 항상 새로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하는 동시에 기억 수단인 매체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기억의 물질적 기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문화적 기억은 단정할 수 없는 ‘모호함’을 드러내면서, 경직되어있기보다 다양성을 담보하며 종종 ‘역사’와 복잡하게 얽히기도 한다. 또한 사적 기억들이 역사에 포함되거나 문화적 기억들이 역사 서사들과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기 때문에 사적 기억, 문화적 기억, 역사의 경계는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9]. 특히 “전자매체의 시청각적 강렬함이나 예술의 감성적 환기력에 의해 문화적 기억은 오히려 확대”되기도 한다[10].

2. 물화와 소외의 변증법적 관계

물화는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이념적 틀과 그 틀이 구성하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구중심주의적 사물화에 지배를 받는다는 논리에 따라 물화가 정의된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가 주창했듯이 물화는 사회와 인간의 “본원적이고 진정한 실체성을 파괴”한다[11]. 즉, 물화는 생산된 인간 활동과 무관한 객관성의 자율화(autonomization of objectivity)와 인간 생산 관계(human relations of production)를 물질적 관계(thing relations)로 만드는 경제의 자율화(autonomization of economic)로 인해 발생한다[12].

물화는 인간의 추상적인 관념, 이념, 감정, 정신 등을 사물로 인식하게 한다. 특히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경쟁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을 도구화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러한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도구화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다.”[13]. 그 결과, 인간은 점점 더 소외되고 만다. 소외를 물화의 과정으로 인식했던 카를 마르크스는 인간 소외의 본질이 물신주의로 인해 발현되며, 이는 곧 순수한 인간성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물신주의를 통해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물화의 대상으로 도구화함으로써 스스로 소외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은 각자 “품고 있는 ‘뿌리가 없는 듯한’, ‘의지할 데 없는 듯한’, 감각이나 무 목적성, 실체상실의 감각 등은 소외관념의 기초를 이루고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가 상실되고 자신의 일에도 소극적이며 희망이 상실된 상태’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14].

특히 물신숭배된 상품, 권력, 지위 등의 이론적 물화들은 우리 자신의 지식을 물화시키며, 전 이론적 소외

(pre-theoretical alienation)와 물화를 영속시키고 정당화시키기[15]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자율화가 사회 일반의 자율화로 확장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만물의 상품화라는) 이 합리적 객관화는 무엇보다 물체의 물체로서의 직접적-질적, 물질적-성격을 은폐”한다[16].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대상은 그것이 자연이거나 타인, 또는 자신의 내면이든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처럼 물화되어 존재하며, 이런 물화 경험에 사로잡힌 인간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을 물화시킨다. 인간 활동이 자신에게서 소외되어 상품으로 변하는 현상뿐만 아니라 물체가 자신에게서 소외되어 그 고유성을 상실하는 현상도 결국 물화로 인해 발생한다. 기계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억삭제(memory erasure)와 기억 이식(memory implant)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SF 서사에서도 기억의 모티프를 다루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III. <솔라리스>의 기억 구성 방식

1. 실체가 사라진 기억의 문화적 흔적

스타니스와프 렘(Stanisław H. Lem)의 동명소설이 원작인 영화 <솔라리스>는 상영시간 166분 45초에 55개의 신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1막 1장과 2장이 첫 번째 신(이하 S#로 표기)에서 S#12까지(00:00~33:35)이고, 2막 3장에서 6장이 S#13~47(33:36~142:37)이며, 3막 7장과 8장이 S#48~55(142:38~166:45)이다(표 1).

<솔라리스>에는 지구에 있는 미지의 호숫가와 집, 외계 행성이자 가상의 바다인 ‘솔라리스’가 핵심 영화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공간들에서 심리학자인 크리스 켈빈(Kris Kelvin, Donatas Banionis)과 그의 사별한 아내인 하리(Khari, Natalya Bondarchuk)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은 인간, 과학, 종교에 대한 서로의 의식을 공유하며 실체가 없는 기억을 집단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S#12, S#17~20, S#26, S#29, S#33, S#38, S#44, S#48~49, S#52~54에서 크리스와 솔라리스에 거주하던 생리학자 기바리안(Gribaryan, Sos Sargsyan), 인공지능학자 스나우트(Snaut, Jüri Järvet), 천체물리학자 사토리우스(Sartorius, Anatoliy Solonitsyn) 사이에 구성된 집단 기억이 우주와 행성이라는 거대 사회(조직), 우

주정거장의 물질적 기반, 인간과 비인간의 정신적 측면에서 문화적 기억 형태로 재현된다.

표 1. <솔라리스>의 내러티브
Table 1. Narrative of <Solaris>

Act	Seq.	S#	Narrative
1	1	1~8	어느 한적한 호숫가 집(지구), 솔라리스 조사위원회에서 기록한 솔라리스 관련 내용
	2	9~12	솔라리스 계획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크리스 켈빈과 안리 베르톤, 솔라리스의 과학자들
2	3	13~19	솔라리스행 우주선, 솔라리스에서 스나우트, 사토리우스를 만나고 기바리안이 자살 전에 남긴 비디오를 보는 크리스
	4	20~24	우주선에서 나타나는 미지의 여인, 기바리안의 비디오, 크리스의 전처인 하리의 등장
	5	25~37	솔라리스와 지구에 구성된 크리스와 하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관한 문화적 기억과 기억의 물화
	6	38~47	인간과 과학에 관한 크리스, 하리, 스나우트, 사토리우스의 대화
3	7	48~54	사유의 바다, 솔라리스와 인류에 대한 성찰
	8	55	아버지와 만난 크리스, 솔라리스의 바다 위에 펼쳐질 때 있는 어느 한적한 호숫가 집(지구)

이런 문화적 기억은 기계적 굉음과 반복되는 우주선의 급회전 끝에 짙은 안개와 구름이 자욱한 솔라리스에 도착한(S#12) 크리스가 ‘알 수 없는 혼란’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스나우트를 만나고(S#17) 그 혼란의 정체가 ‘환상’(크리스), ‘괴물’(S#18, S#33), ‘증성미자’(S#29, S#33), ‘손님’(S#38), ‘매트릭스 복제’(S#38) 등으로 명명된 채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대상으로 구성된다. 이는 미국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시대에 우주를 배경으로 전개된 치열한 경쟁 구도에 따라 발현된 기계기술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불안, 공포 등이 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 등의 미디어 형식 측면에서 구성된 문화적 기억은 솔라리스 우주선 조종사인 안리 베르톤(Anri Berton, Vladislav Dvorzhetskiy 분)이 크리스에게 전달한 청문위원회 비디오(S#6, S#8, S#12), 우주정거장에서 자살한 기바리안이 크리스에게 남긴 비디오(S#18, S#22), 크리스가 하리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유년 시절의 영상(S#31, S#40~41)을 통해 재현된다. 베테랑 우주비행사인 베르톤은 ‘지름이 수백 미터는 될 둥근 공간’에 담긴 ‘끈끈한 물질’에 접촉된 ‘노란 점액’(S#6) 형태로 솔라리스를 기억한다. ‘대뇌피질의 손상에 의한 환각(착각)에서 비롯된’(S#8) ‘독특한 두뇌 바다, 생각하는 물질’(S#12)로 기억하는 방식은 물질적

기반에 근거하는 문화적 기억의 전형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기바리안은 자신에게 일어난 환각증세가 크리스에게 일어나도 ‘미쳤다고 생각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한다고 충고한다(S#18). 그러나 기바리안은 이미 현재의 현실과 과거의 비현실이 혼재된 상황에 처하고(S#22), 크리스는 유년시절의 기억에 감금된 채 어머니와 하리를 동일인으로 간주하며(S#31), 자신을 스스로 도서실 벽에 걸린 그림 속의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바지를 입은 가상의 인물로 대체시킨다(S#40~41).

현실과 비현실, 실제와 비실체가 혼재된 솔라리스(바다)는 물질문명을 숭배하는 자본주의 이념과 사상에 대한 비판과 인간과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가령, ‘과학을 부도덕하게 하는 유일한 주체’(S#11)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물질문명이 아닌)에서 창조되어 진리를 추구하도록 운명 지어진 인간(자신)’이며 그런 인간은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행동’(S#38)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여야 한다(S#38, S#48). 그러나 지구와 우주에 있는 솔라리스에서 인간이 사는 세상은 기괴한 기계음이 연속적으로 들리고, 점멸하는 빛(과 그림자)이 터널을 간헐적으로 밝히며, 복잡한 전기 배선이 노출되어 있는 통로(복도)와 검정색 원형창문이나 있거나 ‘SOLARIS’라는 문구가 선명한 로켓이 설치된, 연기와 안개가 자욱한 가상의 바다와 섬일 뿐이다(S#13, S#17~20, S#25, S#55).

2. 물화된 기억의 도구화, 소외되는 인간

인간의 본원적 인간성이 이념이나 주의로 인해 변질되거나 파괴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솔라리스>의 기억 구성 방식은 기억을 상품이나 재화처럼 거래의 도구로 인식하는 물화를 통해 체계화된다. <솔라리스>에서 물화된 기억의 상징적 대상은 ‘솔라리스’ 자체이다. 솔라리스는 ‘회반죽’이 응고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와 ‘유리처럼 반짝이더니 이내 끊기 시작하면서 거품’을 일으키고 표면은 ‘불에 탄 설탕처럼 갈색’으로 변한 ‘고체 덩어리의 물질’(S#6, S#30, S#36, S#46, S#49)이다(그림 1).

‘생체 전류’(S#8)가 흐르는 ‘생각할 줄 아는 바다’인 솔라리스는 ‘괴물’(S#18)로 은유되어 인간이 잠들었을 때 인간의 의식을 끄집어낸다(S#33). 액체 상태로 물화된 동시에 관념적인 형태로 추상화된 솔라리스(바다)는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인간일 수 있는 가장 본원적

인 기억 대상이 ‘사랑’임을 강조한다(S#49). 수치심을 자각하고 수용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빛이 솔라리스(바다)에서 폭발과 바람과 함께 발현되면서 인간을 구원한다(S#49, S#52). 그 결과, 크리스(인간)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적을 기다려야만 한다(S#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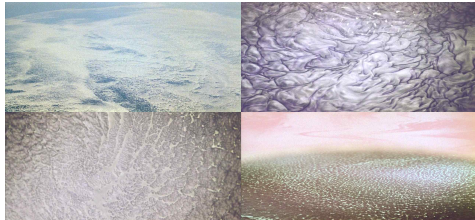


그림 1. <솔라리스>의 물화된 ‘솔라리스’(상단 좌측에서 시계 방향으로 S#7(1,2), S#19, S#30)
 Figure 1. Reified ‘Solaris’ of <Solaris>

(S#32). 이는 하리 자신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물화를 통해서만 존재의 당위를 획득할 수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추상적인 관념(이념)이나 감정(정신)이 사물로 전환되어 가상의 인물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크리스의 물화된 기억에 의해 재현된 하리(상단 좌측에서 시계방향으로 S#24, S#28, S#31, S#42)
 Figure 2. Khari represented by Kris’s reified memory

특히 솔라리스는 실재하지 않는, 기억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의식 속의 어떤 존재가 물질화’(S#26)된 행성이다. 이 물질(행성)에 크리스의 아내인 하리는 가상의 형태로 거주하는 물화된 기억의 상징적인 대상으로 존재한다(S#24~29, S#31~33, S#37~39, S#42~45, S#47, S#50) (그림 2.). 10년 전에 이미 사망한 그녀는 크리스의 ‘의식 속의 어떤 존재가 물(질)화된 기억’(S#26)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썸이다. 하리는 10년 만에 만난 크리스에게 ‘날 사랑하나요?’(S#24)라고 질문하며 눈물을 흘린다(S#28). 그러나 그녀는 안정적인 원자 구성(체, 인간)과 달리 ‘불안정하지만 불멸의 중성미자 구성’(체)(S#29)에 다름 아니다. 스나우트는 하리와 같은 존재를 ‘전혀 기억도 안 나는 의식의 낯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과거의 일부란 걸 다행’(S#26)으로 여겨야한다고 크리스에게 조언한다. 솔라리스(바다)는 솔라리스(행성)에 있는 이들의 ‘머릿속의 어떤 기억을 끄집어’낸다. 그러나 그 기억 대상은 인간(원자)이 아닌 ‘중성미자’, 즉 뉴트리노(neutrino)에 불과하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리는 자신의 죽음과 현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크리스는 이런 하리의 증세가 솔라리스의 바다(안개)가 하리를 자기 기억(self memory) 내부에 침잠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일종의 잠재의식처럼 자신의 기억 내부에 유폐되어 있던 자신을 하리 스스로 ‘물화’시킨 것이다. 그 결과, 하리는 크리스에게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고, 눈을 감는 순간, 자신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고백한다

크리스는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그녀’라고 호명하며(S#37) 자신을 낯설게 하기(determination)의 객관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하리에게 ‘당신이 내게 고통일 수도, (솔라리스) 바다가 보낸 것’일 수도 있으나 ‘단순한 과학적 의미 이상’, ‘진짜(실존하는)’(S#45)라고 절규한다. 물질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별한 아내에게 크리스는 ‘사랑해요’(S#47)라고 고백하지만 이내 ‘모든 인간은 사랑할 수 없음에 대한 고통’을 겪으며,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뿐, 개념처럼 설명할 순 없어요. 우리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죠.’라고 토로한다(S#48). 마침내 그는 스스로 물화시킨 기억이 하리에게 이식되어 하리로 하여금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타자에 머물게 했고, 이런 기억의 물화는 인간마저 객관화된 대상으로 물화시킨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IV. 결론

어떤 형태의 기억이든 기억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 시간과 그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억 경험이 지속적으로 전송되기 위해서는 역사나 미디어 같은 일정한 문화적 형식이 요구된다. 사회적, 물질적, 정신적 관점에서 기억의 제 문제를 다루는 문화적 기억은 기억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법(론)이다. 특히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정체성과 자율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억의 물화는 현대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물론 인간의 삶을 물화시켜

그것들을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치부한다.

본 논문은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솔라리스>를 텍스트 분석대상으로 선정해 문화적 기억과 기억의 물화의 중요성을 탐구하고자 했다. <솔라리스>처럼 장르상으로 공상과학영화(SF; Science Fiction)로 분류되는 영화는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무위시키며 영화적 진실과 허구에 대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촉발해왔다. 영화에서 재현되는 영상이 여타의 “미디어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데다[17] 장르와 감독의 연출 스타일에 따라 영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영화 기술의 발전이 그 기반이 되기도 했다[18]. <솔라리스>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외계 행성인 솔라리스의 솔라리스 바다가 자신들의 ‘머릿속의 어떤 기억’(S#26)을 끄집어내 진실을 은폐한다고 의심한다(S#19). 물질이자 의식인 솔라리스는 과학이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괴물 같은 본성을 은닉시킨 인간의 또 다른 이름에 다름 아니며, ‘인간에겐 인간이 필요’(S#38)하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S#48)해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는 <솔라리스>를 통해 솔라리스 바다의 끈끈한 점액질처럼 인간의 기억도 유동성을 상실한 채 응고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마치 실체가 매우 간단하게 복제되고 가공되면서 실체가 아닌 것으로 둔갑되듯이 기억도 속절없이 박제되거나 화석화되면서 기억의 실체는 실종되고 기억이라고 불리는 것의 흔적만 물화된 형태로 잔존할 뿐이라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References

- [1] J.S. Chun, *History Speaks of Memory: A Cultural History for Theory and Practice*, Seoul: Humanist, p. 21, 2005.
- [2] I. Chambers, “Maps, Movies, Musics and Memory,” Clarke, D.(ed.), *The Cinematic City*, London: Routledge, p. 234, 1997. DOI: 10.4324/9780203973363
- [3] J.S. Chun, op. cit., p. 20, 2005.
- [4] M.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Coser, L.A.(tra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39, 1992. DOI: 10.7208/chicago/9780226774497.001.0001
- [5] A. Assmann, *Cultural Memory and Western Civilization: Functions, Media, Archives*, H.S. Byun and Y.S. Chae(trans.), Daegu: Kyungpook University Press, pp. 33-35, 2003.
- [6] A. Assmann, *ibid.*, p. 169, 2003.
- [7] A. Erl,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roduction,” Erl, A. and Nünning, A.(eds.),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pp. 3-7,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8. DOI: 10.1515/9783110207262
- [8] A. Assmann, op. cit., pp. 16-23, 2003.
- [9] M. Sturken, *Tangled Memories: The Vietnam War, the AIDS Epidemic and the Politics of Remember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6-7, 1997. DOI: 0.2307/2580732
- [10] J.S. Chun, op. cit., p. 176, 2005.
- [11] K. Marx and F. Engels, *Collected Works of Marx and Engels*, Moscow: Progress, Vol. 34, p. 92, 1975.
- [12] P. Berger and S. Pullberg, “Reification and the Sociological Critiques of Consciousness,” *History and Theory*, Vol. IV, No. 2, p. 199, 1965.
- [13] W.S. Kim, “Critique of Reification and Korean Society,” *Society and Philosophy*, Vol. 23, p. 88, 2012.
- [14] A. Hauser, *Art and Alienation*, J.W. Kim(trans.), Seoul: Jongno Books, p. 128, 1981.
- [15] K.K. Kim, “A Comparison Between Dramaturgical and Phenomenological-Sociological Approaches to Reified Reality and Freedom: With a Special Emphasis on Erving Goffman and Peter L. Berger,”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Vol. 13, No. 46, p. 151, 1989.
- [16] G. Lukács,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Studies in Marxist Dialectics*, Livingstone, R.(trans.), Cambridge, Mass.: M.I.T. Press, p. 92, 1971.
- [17] Zhou YuFeng, W.H. Choi, “A Study of the Semiotic Features of Realistic Films: Focused on the <Silence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5, p.910, 2023.
- [18] Xiajun Zong, Y.J. Kim, “Transformation of Film Directing and Cinematography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ments: Focusing on Ang Lee’s Fil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11, No. 2, pp.64-65, November, 2023. DOI: 10.17703/IJACT.2023.11.2.64